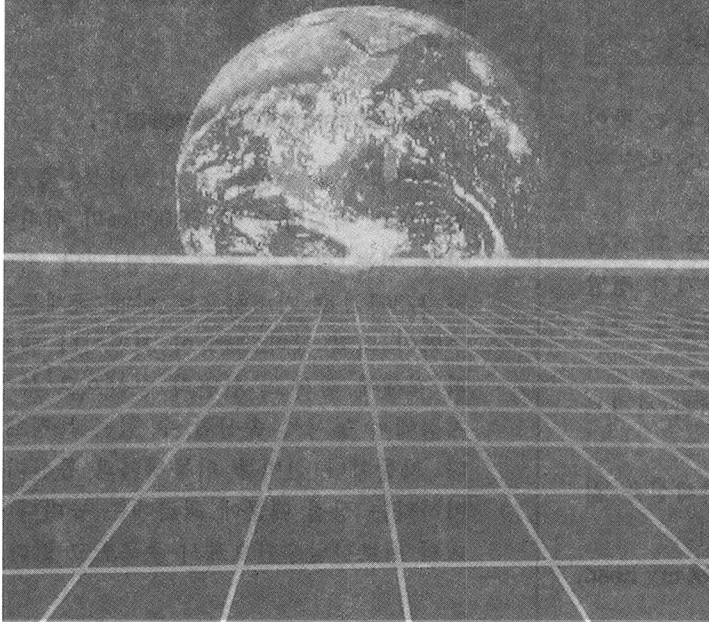


# 세계각국의 정보통신시장 동향



## 동남아

### 사마트그룹

#### R&D 자회사 설립

태국의 유력 통신기계제조사인 사마트그룹이 최근 R&D 전문 자회사인 사마트리서치 앤드 디벨로프먼트를 설립키로 했다.

지금까지 기업내의 1개 부문으로 돼있던 연구소를 독립기업으로 설립키로 한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그룹내 각사의 제품개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년내에 그룹의 기업으로부터의 수탁연구도 수행, R&D비즈니스 자체로 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동사는 신회사인 사마트리서치 앤드 디벨로프먼트의 자

본금을 1천만바트로 하고 향후 설비확충을 위해 2천만바트를 더 투자하며, 현재 20명의 연구인력을 40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이다.

사마트그룹은 현재 모기업인 사마트텔레콤 외에 유선 TV사업을 담당하는 사마트케이블네트웍, 통신위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사마트세트콤 등 5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 일본

### 하카미가社

#### 한국에 자회사 설립추진

CAD시스템 제조회사인 하카미가社는 전액출자로 한국에 CAD보수서비스 자회사를 설립키로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신청했다.

동사의 이러한 계획은 가전제품 제조회사에 의한 VTR 및 오디오기기의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CAD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한국정부도 국내의 하이테크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6월경인가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금까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의 전액출자 자회사 설립을 제한

해 왔으나 최근 조건이 좋으면 인가해줄기로 방침을 전환하였다.

그동안 일본의 하이테크기업이 수출자유지역 이외에서 전액출자 자회사를 설립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를 기술이전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까미가社는 인가후 8명의 사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개시하며, 본사를 서울에 둘 예정이다.

현재 동사는 서울의 대리점 2개사를 통해 프리나트배선기판 설계용 CAD시스템등을 전자기기 회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누적 납입대수는 삼성전자 160대, 금성사 45대, 현대전자 20대에 이르고 있는데, 보수서비스는 지금까지 본사에서 출장으로 이루어져 왔다.

동社는 한국정부가 한국에서 국산화되지 않은 업종으로 국내회사와 경쟁관계가 없고, 한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조건이면 인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액출자 자회사를 설립키로 한 것이다.

## NTT社

### 통신위성조달社 가을에 결정

일본전신전화(NTT)는 최근 통신위성의 조달을 위한 자료제출을 위성제작회사들에게 요청하였다.

3월27일까지 제출될 자료는 유사위성의 실적, 발사수단, 제작, 시험설비, 위성추적감시 제어설비등과 NTT의 기본요구 사양과 일정등에 대한 제안들이 포함된다.

NTT는 이러한 시장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사양을 작성, 5월경 선정수속에 들어가 가을에 입찰을 붙여 제작회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성제작의 기본계획을 보면, 운용개시는 A호기가 95년 4-6월, B호기가 10-12월이며, 한기의 탑재중계기는 차광·휴대전화용 S밴드 1계통, 도서통신용 C밴드 6계통, 공중통신망의 백업용 Ku밴드 8계통, Ka밴드 11계통, 합계 26계통으로 되어 있다.

## KDD社

### 중국과 전기통신분야 협력각서 조인

일본의 국제전신전화(KDD)는 지난 2월5일 중국우전부와 전기통신분야에서의 교류를 위한 각서를 교환하였다.

KDD는 지금까지 중국에 텔렉스단말기 2천2백대의 무상공여등 협력을 해왔으나 이번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앞으로 KDD와 중국은 담당간부의 상호교류와 각종 세미나 개최, 간행물의 교환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KDD는 이와같은 각서교류를 과거 한국, 말레이시아등과 체결한 바 있으며 중국이 12번째가 된다.

중국은 내년초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위성을 경유한 디지털 위성통신설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KDD가 이에대한 기술협력을 예정하고 있으며, 93년에는 양국의 공동 프로젝트로서 중일간을 연결하는 광해저케이블의 부설이 결정되어 있다.

## 대규모 VAN社들

### ISDN접속으로 경쟁력 개선

일본전기, 인텍등 대규모 VAN 사업자들이 각각 자신의 패킷교환망을 일본전신전화(NTT)의 종합디지털통신망(ISDN)과 접속한 패킷교환서비스를 2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하였다.

이용자는 ISDN을 통해 VAN을 액세스하고 상호 전송이 가능하다.

현재 ISDN을 액세스회선으로 한 패킷교환서비스를 개시한 회사는 일본전기, 인텍이외에 후지쓰, 공통VAN, 일본ENS등이며, 도시바도 4월1일부터 이를 개시할 방침으로 있다.

이들 회사는 NTT의 ISDN 패킷교환기인 「INS-P」와 동경, 오사카등 전국 7개소에 있

는 자사의 교환기를 접속시킴으로써 유저가 전국에 약 천개소의 액세스포인트가 있는 INS-P를 경유해 자사의 VAN을 이용토록 한다.

양자의 접속은 국제표준 프로토콜인 X-75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용요금은 각사 모두 1패킷당 전국 일률적으로 0.4엔이며, 가입료로 1만엔이 부과된다.

또한 VAN사업자들은 액세스회선료를 갖고 월 6천3백9십엔의 INS-P이용료를 NTT에 지불하지만 전용회선으로 VAN을 접속하는 경우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NTT는 작년 6월에 ISDN 가입자를 위해 패킷교환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그동안 VAN사업자들은 NTT와의 경쟁으로 궁지에 몰렸으나 이번의 상호접속에 따라 VAN측의 경쟁조건이 개선되게 되었다.

## 차량·휴대전화

### 작년말 78만대 보급

일본의 차량 및 휴대전화시장 규모가 작년말 80만대에 육박했다.

이와같은 증가추세로 보아 금년 3월말에는 전년도 말에 비해 약 80% 증가가 예상된다.

NTT 이외 즉 신전전 각사의 합계 점유율도 35%에 근접하는 급증을 나타냈다.

또한 전체시장중 휴대전화 비율은 45%를 넘어섰다.

작년 12월말까지의 차량·휴대전화 가입건은 전국 약 78만6천1백대로 NTT가 51만4천대, 도요다자동차 계열의 일본이동통신(IDO)이 11만9천대, 교세라계열의 제2전전(DDI)의 관련회사인 셀룰러 전화 그룹 7개사 합계가 약 15만3천1백대였다.

이와같은 증가는 89년3월에 전년도말 대비 60%증가, 90년3월말에는 이의 2배로서 고수준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IDO와 셀룰러 각사의 합계가 27만2천1백대로 점유율은 34.6%이다.

차량, 휴대전화 서비스의 신전전은 88년12월에 IDO가 처음 참여하였으며, 영업기간이 짧은 가운데도 NTT에 비해 기본요금이 20%, 통화요금이 10~20% 저렴한 것을 무기로 이용자를 확대해 나갔다.

지금까지 신전전 점유율은 89년3월말의 1.7%에서 90년3월말에 22.6%, 90년 9월말에 30.6%로 급신장해 왔다.

최근 수년동안 시장확대의

선두주자는 가볍게 휴대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이며, 전체적인 점유비율이 89년3월 20%이내 였으나 90년3월말에 33%, 12월에 46%로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치는 특히 후발 신전전만의 휴대전화 비율이 거의 75%를 점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 JCTV社

### CNN 계약 급증

CNN(미국 CABLE NEWS NETWORK) 뉴스를 시청하는 기업이 일본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계약대리점인 일본 케이블TV(JCTV)에 따르면 금융, 증권등 지금까지의 고객에 이어 중동정세와 깊은 관계가 있는 석유, 화학산업 및 공공기관의 계약신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작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후 일본내의 CNN단말수가 만개가가이 증가하였고 UN이 정한 이라크의 철군시한이 가까워지자 문의가 쇄도하다가 개전후에는 하루 30건을 넘는 전화가 걸려왔다.

작년 8월에는 매스컴이나 대형 금융기관의 신청이 많았

으나 지금은 석유, 해운, 지방은행, 상사, 제약회사등의 신청이 많아졌고 후생성과 운수성등도 계약을 결정했다.

작년말 CNN을 시청한 법인은 203개, 단말기수가 6만4천이었던 것이 현재는 법인이 300개를 넘었고, 단말기수는 곧 7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CNN뉴스를 방영하는 CATV국의 시청율이 높아가고 있어 JCTV의 CATV 네트워크도 현재 약 80국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미 주

### 애플컴퓨터社

#### PC통신용 무선주파수 신청

미국의 애플컴퓨터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미사용 주파수를 PC통신용으로 할당해 주도록 신청했다.

이번 애플社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전화회선을 사용치 않고 랩톱형 PC끼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애플社는 휴대전화등 이동체통신이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음성과 같이 데이터통신 분야에서도 무선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는

40MHz밴드로서 종래 철도수송기관이 마이크로무선용으로 사용한 영역중 미사용부분이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애플 1개社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회사 전체가 공용하여 PC통신에 사용하게 된다.

애플社는 이것을 소형 경량 PC간 통신에 이용할 계획인데, 이미 모토로라등이 무선에 의한 LAN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으며, 새로이 이동체 PC통신을 실현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계속되는 이동체의 신기술 등장으로 주파수의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으며, 애플社의 구상에 대해 기존 통신업계로 부터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FCC가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애플社는 약 1년후에 실험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다.

### 제너럴 인스트루먼트社

#### MIT와 HDTV 공동개발

제너럴 인스트루먼트(GI)와 마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전디지틀방식의 고품질TV(HDTV)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틀방식은 음성 및 화상 신호를 모두 디지틀신호로 전송, 처리하고 방해방지 및 화상의 고품질 유지가 가능한 방식이다.

GI는 작년 6월 전디지틀방식인 「디지사이퍼」를 발표, FCC의 방식선정 경쟁에 참여하였다.

MIT도 디지틀·아날로그 혼합방식을 제안하여 경쟁에 참가하였으나 공동개발 성과를 위해 디지틀방식으로 제안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에서는 디지틀 채용으로 일본의 아날로그방식 개발에 대해 미국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FCC선정에서는 전디지틀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데이터포인트社

#### 본사기능 유럽이전

미국텍사스주 산안토니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보통신장비 전문 제작회사 데이터포인트社는 본사기능을 모두 프랑스 파리로 이전한다.

이는 미국시장에서 영업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내 조직을 합리화하고 수입원천인 유럽시장으로 목표를 전환해 개발 및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컴퓨터업계에서는 PC 수요가 신장되고 있는 유럽시장의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사까지 이전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수개월전부터 투자자문회

사인 키-더 피바디에 의뢰하여 회사의 매각을 포함한 경영재건을 상담해온 동사는 최근 기업의 매각보다 조직과 인원의 재배치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향후 3개월내에 파리본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동사가 그동안 국내사업의 합리화를 진행해온 결과는 이미 전종업원 천7백명중 천3백명이 유럽에 집중해 있고 매상고의 80%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데이터포인트社は 따라서 동유럽의 자유화 및 92년의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에 즈음하여 유럽에서의 우위를 다져장차 유럽전체에서의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사는 미국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인의 국적 및 뉴욕주식거래소에서의 상장과 산안토니오공장등은 현재대로 두게 된다.

## 유럽

### 지멘스社

#### 암펠 매수 검토

스페인의 최대 통신기기 제조회사인 암펠이 최근 독일의 지멘스와 제휴교섭을 계속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교섭은 지멘스에 의한 암펠의 매수로 합의될 공산이 커 향후 지멘스가 스페인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편이 가속되고 있는 유럽의 통신기기업계에서는 최근 남유럽시장 전략이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양사의 제휴는 타사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암펠은 스페인의 전신전화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텔레포니카가 주식의 16%를 보유한 최대의 전화기 제작회사로 그동안 모토롤라, AT&T 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방위부문과 민간의 수요가 불확실해지는등 경영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스의 알카텔과 미국의 AT&T등이 디지털전화교환기등 통신기기를 납품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한 지멘스로서는 이번 암펠과의 제휴가 스페인시장 참여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체르노그라드市

### 위성통신 보유계획

소련 모스크바 교외에 경제특구를 계획중인 체르노그라드시의회는 미국, 프랑스의 통신회사와 함께 국제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를 서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련 국내의 경제특구에서 독자로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국제전화가 원활치 못한 소련의 통신 사정에 따라 市の회는 이미 미국과 프랑스의 통신회사와 위성통신사업에 대해 기본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상대기업의 투자 비율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市の회는 일단 합병회사를 설립, 이를 맡길 계획인데, 통신규격은 서방측 국제표준을 따를 예정이며, 위성발사 및 운영비용은 미국 및 프랑스 통신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련에서는 국제전화 대기시간이 1~2시간씩 걸리고 있어 경제특구에서 외국회사들의 사업상 불만이 예상되어 왔다.